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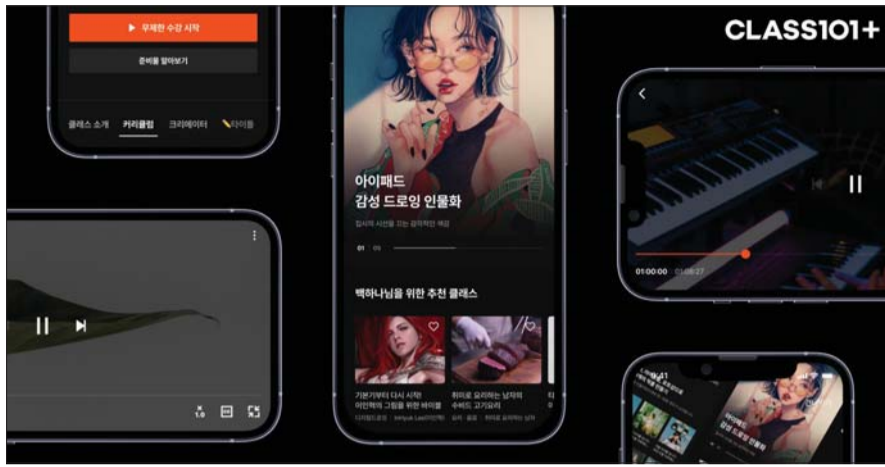
# “바쁜일상 편리하게”... 취미·전기식 등 구독경제 ‘폭풍성장’

산업 분야, 상품 종류 지속 증가  
2025년 약 100조대 성장 전망  
“대다수 기업, 서비스 발굴 주목”

공유경제에 이어 새로운 경제 모델로 ‘구독경제’가 떠올랐다. 공유경제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이었다면,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제모델이다.

최근 일상 속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교육부터 엔터테인먼트, F&B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구독 서비스 플랫폼들이 출시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20년 40조원으로 집계된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약 100조원으로 약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즉석밥 ‘The미식(더미식)밥’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



클래스101+ 모바일 화면

/클래스101

객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백미밥, 메밀쌀밥, 귀리쌀밥, 현미밥 등 더미식 밥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고 배송 시기를 정하면, 주기적으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지정된 날짜에 주기적으로 해당 상품을 배달해주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질 즈음에 상점에서 물품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건강 분야 구독 서비스도 급부상하는 추세다.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아이허브는 국내 구독경제 성장을 눈여겨 보고 지난 9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건강기능식품부터 식료품, 퍼스널 케어 제품까지 1만80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1~6개월 주기로 선택해 배송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1만여명으로 론칭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아이허브 측은 올



더미식 즉석밥 정기배송

/하림

도 54%를 넘어섰다. 풀무원도 지난 7월 ‘디자인밀 당노케어 밀 플랜’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 신규 회원이 매월 평균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퇴근 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도 구독 서비스로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다.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은 지난 8월 구독 서비스 ‘클래스101+’를 론칭했다. 매달 2만원이 안되는 구독료를 내면 25개 카테고리 4000여개의 클래스를 어디에서나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라이프스타일 부문 인기차트 1위, 전체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구독 경제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다수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운택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서비스 발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동원그룹, 동원산업 지주사 체제 지배구조 재편

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 마무리  
스마트 항만 등 신사업 투자 속도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새로운 지주회사로 출범했다.

동원산업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종료 보고총회를 갖고 합병당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회사는 앞서 9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계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에 따라 발행될 신주는 631만8892주 규모로 오는 16일 추가 상장된다.

동원산업은 1969년 창립한 동원그룹의 모회사로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 지주회사 지위로 올라서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중심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합병 전 동원산업 대표를 맡았던 이명우 사장을 사업부문대표로, 동원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지냈던 박문서 사장을 지주부문 대표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동원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를 맡았던 김주원 카오 부회장을 동원산업 이사회 의장으로 새롭게 선임했다.

동원산업은 앞으로 계열사별로 추진하는 신사업의 연락처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고감한 투자를 실행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 스마트 연어 양식, 스마트 항만 사업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이 대표적인 계획이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선다. 동원산업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 물량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액면 분할된 신주는 오는 28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GS리테일  
이천쌀 등 경기미 30% 할인

하루 할인 총액 6만원 제한

GS리테일은 GS더프레시와 GS프레시몰을 통해 12월까지 명품 경기미(미)를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이천쌀 등 경기미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다. 할인 금액 폭도 최대 30%로 올해 생산된 햅쌀 구매 방법 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다.

1인당 구매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하루 할인 총액은 6만원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GS더프레시 130여 점은 직접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또 온라인 장보기 전문몰 GS프레시몰도 동일한 할인율로 판매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NS홈쇼핑,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전시관 운영... 식품 협력사 지원

NS홈쇼핑이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진행되는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식품 협력사를 위한 전시관을 운영한다.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코엑스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식품 산업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픽 유 어 테이스트’를 주제로 최신 푸드 트렌드를 선보이며 20개국 895개 사 1479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NS홈쇼핑은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우수 협력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과 소비자 만족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NS홈쇼핑이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부스를 열고 협력사 상품 홍보를 돕는다. /NS홈쇼핑

개척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뉴, 달구지푸드, 다나인 홀딩스, 지케이라이프 등 4개 협력사에 부스 참가비와 시설 사용료, 방역 물품 등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참여한 협력사는 행사 기간 시식과 현장 판매를 비롯해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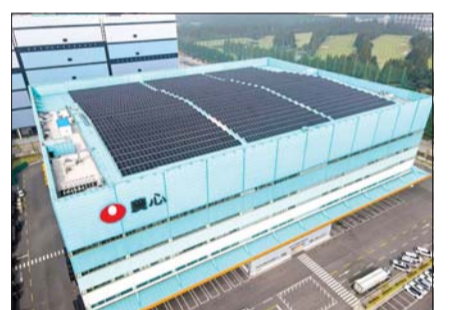
## 농심, 인천물류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축구장 1.3배 면적... 연 1400MWh 생산

농심은 인천북항물류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전국 사업장에 해당 설비를 확대해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심의 인천북항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2066개를 이어붙인 것으로 축구장 1.3배 면적에 이른다. 연간 약 1400MWh의 전력을 생산해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된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650톤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매년 약 46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나갈 것”이



농심 인천북항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농심

라고 덧붙였다.

농심은 2018년부터 생산설비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라면과 스낵 제조 중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공기압축기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등 2021년까지 총 44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신원선 기자

### 유통업계 신제품

하림  
순수한 다시마야채멸치육수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100% 국내산 다시마와 멸치, 야채만으로 우려낸 ‘순수한 다시마야채멸치육수’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하림의 ‘순수한 다시마야채멸치육수’는 완도산 다시마와 삼천포산 멸치를 비롯해 양파, 마늘, 대파, 표고버섯 등 야채까지 국내산 재료만 엄선해 깔끔하게 우려낸 제품이다. 합성첨가물, 향미증진제 등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소금을 넣지 않아 짜지 않다. 황태국, 콩나물국, 어묵탕, 잔치국수 등 국물요리는 물론 장조림, 두부조림, 연근조림 등 반찬류를 만들 때 배이스로 활용하기 좋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쉐이크 앤 팬’ 2종 리뉴얼

오뚜기가 기존보다 용량을 더 늘리고 반죽의 점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쉐이크 앤 팬’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

이번에 리뉴얼된 ‘쉐이크 앤 팬’은 홈베이킹으로 인기가 높은 ‘핫케이크믹스’, ‘와플믹스’ 2종으로, 용량을 기존 150g에서 250g으로 늘려 더욱 넉넉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반죽의 점도를 바꿔 식감이 촉촉하면서도 용기에서 잘 흐르는 최적의 반죽 점도로 개선했다.

거품기, 계량컵, 반죽 그릇이 필요 없고, 우유만 넣고 흔들어 반죽을 만든 뒤 프라이팬에 구우면 바로 완성할 수 있어 조리부터 설거지까지 매우 간편하다.

/신원선 기자